바울의 새관점의 비판적 고찰과 성도의 견인

김동수박사
바울신학대학원 원장

바울의 새관점

1. E. P. Sanders

1977 년 E. P. Sanders 는 그의 책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주의에서 바울이 1 세기의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로 잘못 이해하고 종말적 구원론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제시하기 위해 인간의 곤경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의 해결자로써 예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가진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대주의는 본시 율법주의적 종교가 아니었고 언약적 신율주의(covenant nomism)로써 유대인들은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getting in) 그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 (staying in) 종교였다는 것이다

바울의 새관점

2. James D.G. Dunn

제임스던은 샌더스의 이 이론을 바울의 새관점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 이론이 종교개혁적 해석의 틀을 유지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바울이 일세기 유대주의(Judaism)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고 마틴루터가 바울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즉 유대교가 의식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여 그들이 의식법을 따라야만 개종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던은 성경의 저자들이 통일된 기독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론을 부정한다.

바울의 새관점

3. N.T. Wright

라이트는 바울의 새관점주의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했다. 즉 바울은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았고 루터가 바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에 있어서 의의 개념은 교회론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종말적 구원은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미래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의의 전가론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는 칭의와 성화를 주권적으로 주관하는 성령의 사역을 도외시 한다. 그는 신자가 선행을 통해서 종말에 칭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성도의 견인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울의 새관점

4. 김세윤

김세윤은 처음에는 바울에 대한 새관점을 비판했었다. 즉 새관점주의가 바울의 칭의론의 죄사함의 측면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바울의 새관점주의를 비판했지만 최근 저서에서는 새관점주의의 언약적 신율주의가 바울의 칭의론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새관점주의에서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맺어지고 행위로써 그 언약관계가 유지된다는 구조는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순종과 행위로서 의로와진다는 바울의 구원론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김세윤은 바울의 칭의론이 회중의 상황에 따라 형성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칭의론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행위구원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한 신학개념이라는 것이다

바울의 새관점

4. 김세윤

김세윤은 케제만의 칭의의 개념을 수용하여 칭의는 근본적으로 주권의 전이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마귀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된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순종하며 삶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칭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이중적 칭의론의 기초이다. 즉 칭의는 법률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가 있는데 전통적 칭의론은 관계적 칭의의 측면을 무시했기 때문에 윤리가 등한시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의 “관계적 칭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순종으로써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의 새관점

4. 김세윤

김세윤은 신자들이 계속 믿음으로 그 언약적 관계속에 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재림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칭의는 완성되어 의인으로 확인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관계속에 서 있는 것을 바울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롬 1:5; 16:26). 칭의에는 구조적으로 믿음의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칭의개념에 믿음의 순종의 개념을 집어넣고 있지 않다. 그 반대로 바울은 믿음이 순종을 낳고 이에 따라 성화와 견인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가르친다.

바울의 새관점 평가

바울의 새관점 학자들은 저마다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공통된 요소들이 발견되는데 그것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그들은 하나님의 개인예정론(individual election)을 부정하고 그 대신 단체예정론(corporate election)을 지지한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교회를 선택하셨다고 주장한다.
2. 칭의는 은유(metaphor)이기 때문에, 칭의는 반드시 성화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바울의 새관점 평가

3.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따라서 바울의 이방인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맥락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4. 그들은 바울의 구원론을 단동적(monergistic)이지 않고 신인협력적(synergistic)이라고 이해한다. 이에 따라 신자들의 순종의 삶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미래의 구원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Dongsu Kim, *Perseverance and Apostasy in the New Testament: Unpacking the Dynamic of God's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Bloomington, IN: Westbow Press, 2022], 661)

바울의 새관점 평가

결론

바울의 새관점 학자들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보전하심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유지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신자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서 미래의 구원이 보장되며, 만일 진정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순종에 실패하고 배교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도의 견인론

1. 알미니안의 견인론

성도의 견인론은 캘빈의 오대교리의 하나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택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이 교리를 반대하여 참신자도 순종에 실패하고 배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 알미니안들은 예정론적 구원론을 배격한다. 이와함께 알미니안주의에서 성도의 견인은 전적으로 신자 개개인의 영적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무거운 책무이고 견인은 종말적 구원의 조건이다. 아주사퍼시픽대학의 오로피자(B.J. Oropeza, *Apostasy in the New Testament Communities, 3 vols*)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택자도 배교할 수 있고 배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배교자는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도의 견인론

1. 알미니안의 견인론

오로피자(Oropeza)는 신약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고 배교의 개념도 서로 달랐다고 주장한다. 즉 바울서신에서 배교는 윤리적인 일탈을 의미하고 배교자의 회복 가능성을 가르치는 반면 히브리서는 배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죄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죄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신약성경의 영감성과 통일성을 부인하는 주장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혼동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나아가 기독교 교회를 그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이단적 개념이다

성도의 견인론

오로피자는 가룟유다는 참신자였는데 배교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참신자가 아니었다.

오로피자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했지만, 그는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족했지만 배교했던 것은 아니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사도요한은 일세기 말에 로마관원에 의해서 심문 받던 신자들이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마태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후에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가 배교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제시하며 신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견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그렇다면, 배교는 무엇인가?
배교의 죄의 구약적 배경은 이스라엘백성들이 고의로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사함받지 못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때는 사함받지 못했다 (출 32:33; 민14). 이와 병렬되는 신약의 죄는 성령훼방죄이다. 성령훼방죄는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는 죄이다. 이는 신자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죄이다 (마태 10:32-33; 12:32; 누가 12:10; 요한 6:66; 8:31; 요일 2:19-22; 5:16).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약의 기독론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그런데, 신학자마다 배교의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 오로피자는 배교는 기독교의 윤리적 규범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배교한 후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교의 개념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배교의 개념의 본질은 마태 12:32에 제시되어 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훼방죄가 곧 배교의 죄이다. 이후 신약의 저자들은 각자의 교회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교의 죄를 적용하고 있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누가는 누가 12:9-10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며 인자를 부인하는 죄가 곧 성령훼방죄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배교의 죄의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인자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둘째, 고의적인 부인이다. 불신자도 인자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신자가 된 것처럼 불신자들은 바울처럼 복음을 믿고 회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가 인자를 부인하는 것은 고의적인 부인이다. 이러한 고의적인 부인은 사함받지 못한다.
셋째, 배교의 죄를 범한 자는 고범죄를 짓는 것이므로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 배교의 죄는 히브리서 6:4-6; 10:26-29절의 말씀과 같이 회개케 할 수 없는 죄이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성령훼방죄의 구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대신 요한일서 5: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곧 배교의 죄이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요한일서에서 배교의 죄는 “나간자들(the secessionists)의 죄”로 제시된다 (요일2:19). 이들은 요한의 교회의 신도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다(요일2:22).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요일2:27). 그리고 형제를 미워했고 사탄의 자식들이었다(요일 3:10).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성령훼방죄의 구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배교자들이었다고 제시한다. 요한 8:31절에서 요한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πεπιστευκότας)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한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은 요6:60-66에 제시된 예수의 제자들과 연결된다. 요한은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불평했고 결국 예수를 떠나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한다 (요6:66).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 앞마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앞에 와서 서서 예수를 공격하고 대적했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만일 그의 말에 거했다면 참제자였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종인적이 없었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뽐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자신을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재성을 부정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요8:44). 그들은 예수가 귀신들렸다고 공격하고 (요8:52) 예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씀하자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다 (요8:59).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여기서 우리는 요8:52(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가 마태12:24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와 평행구절임을 본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성령훼방죄를 짓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도 고의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여 이 성령훼방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령훼방죄가 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가리킨다.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바울은 공관복음의 배교의 개념을 교회에 적용하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곧 배교라고 제시하고 있다.
갈 5:3-4: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고전 10:9-11: 저희 중에 어떤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바울은 중생한 신자는 견인한다고 말씀한다. 그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8:28-30절과 엡1:3-14이다. 그러나 논쟁이 되는 구절이 존재하는데 빌2:12-13; 골1:22-23절 등이다.
골1:22-23: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ἀποκατήλλαξεν)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εἴ γε ἐπιμένετε τῇ πίστει)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

성도의 견인론

2.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

신약성경에서 배교에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 중의 하나는 히브리서 6:4-6; 10:26-29이다.

히 6:4-6: 한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 10:26-29: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도의 견인론

요약

신약의 저자들은 일관되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인 것과 똑같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견인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제시한다. 견인은 성도들이 종말적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보존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베드로가 사탄의 맹렬한 유혹의 화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 사역 전체에 걸쳐 하신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

성도의 견인론

반면에 유다는 배교하여 버린 바 되었는데, 이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던 기간 동안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동일한 원리로 모두에게 적용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잔인하고 우울하게 들릴 수 있다.

성도의 견인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선택의 자유에 외부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부모, 형제, 이웃, 국가, 인종 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진실로,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다.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것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법령과 섭리 밖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인간은 겸허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들 간의 무한한 간격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저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울이 언급하듯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며 인간은 빚어지는 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모든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성도의 견인론

맺는말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견인과 배교에 대해 공통되고 일관된 견해를 가졌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배교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배교자들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배교자들은 무법주의와 비윤리적 삶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견인과 배교의 개념에 대한 신약성경의 통일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훼방죄에 기반한 그분의 배교에 대한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약의 후기 저자들은 예수님의 견인과 배교에 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각각의 역사적 환경과 목회적 필요에 따른 배교의 죄를 규명하고 있다.

성도의 견인론

맺는말

배교의 죄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의도적인 부인이다. 이러한 배교의 개념은 신약 저자들이 일관되게 견지하였던 통일된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술한 배교의 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윤리적 일탈이 아니라 기독론적 죄이다. 즉 배교는 기독교 신자들이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이 배교의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 개념은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등기독론의 중심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성도의 견인론의 목회적 적용

하나님의 예정설과 성도의 견인론을 설교와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역사에서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 적용의 원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예정론에 바탕을 둔 가르침을 주셨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도 그 서신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자들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한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서 배교자가 되었다가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었는가
   인자를 거스려 말하는 죄 vs. 성령훼방죄
   우발적인 죄 vs. 고의적인 죄
1.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부인을 배교의 개념에 연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나는 그를 모른다 vs. 나는 아니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가룟유다는 참신자였는데 배교함으로서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가룟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한 6:64, 70; 13:10; 15:3)
1. 성령훼방죄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교

토론을 위한 질문

1. 시몬마구스는 참신자였다가 배교했는가
   그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하는 기적을 믿었다
1. 요한은 배교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 (요일 5:16). 신약의 견인과 배교에 대한 가르침을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할 것인가
   렘11:14; 14:11-12

감사합니다

김동수박사

hagiospat@gmail.com

www.stpaulsem.com